



# ‘섬’이라는 공간의 확장성… 7인의 시선

이룸갤러리, 한라일보 1층에 두 번째 전시공간 조성  
내달 8일까지 개관기념전… 중견작가 회화 29점 전시

2021년 제주시 연동에 문을 연 이룸갤러리. 제주를 기반으로 동시대 시각예술을 소개하며 작가의 작업과 관람자의 경험이 만나는 공간으로 자리해오며 예술의 흐름을 이어왔다. 이러한 흐름을 연동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원도심의 또 다른 전시공간으로 확장한다. 제주시 삼도동에 문을 여는 이룸갤러리의 두 번째 전시공간이다.

한라일보 1층에 있던 옛 갤러리 ED 자리를 새롭게 꾸며 들어서는 이룸갤러리(배봉근 대표·관장 이희숙)는 개관 기념전으로 ‘확장되는 섬(Expanding Island)’을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연다.

전시는 제주를 기반으로 작업해온 작가 7명의 시선을 통해 ‘섬’이라는 공간이 지난 확장성과 현재성을 조명한다. 제주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이어오며 각자의 자리에서 작업 세계를 묵묵히 쌓아온 중견작가들의 회화 작품 29점을 선보인다. 제주라는 섬에서 경험되는 이동과 머물의 감각을 작업하는 강주현 작가, 제주 자연을 오래 관찰하고 체화한 풍경을 자신의 회화 언어로 펼쳐내는 김용주 작가, 제주 돌에 축적된 시간과 기억을 시각화하는 문창배 작가,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오가며 제주 자연 풍경을 색채와 화면의 밀도를 통해 감각적으로 재구성하는 박성진 작가가 함께한다.

또 제주 자연과 일상의 감각을 화면 속에 시각 언어로 연결해 온 양영심 작가, 흙놀이를 중심으로 삶의 기억과 감각을 화면 위에 회화로 축적해 온 정형준 작가, 한라산의 응장함과 자연의 기운을 전달하는 채기선 작가도 참여한다.



김용주의 '비자림에 부는 바람'. 소용돌이치는 바람에도 견고히 견디고 있는 나무의 거대한 생명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전시 개막식은 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시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희숙 관장은 “앞으로도 지속되

## “늘 역사의 현장에” 사진기자들의 기록

2025 제주보도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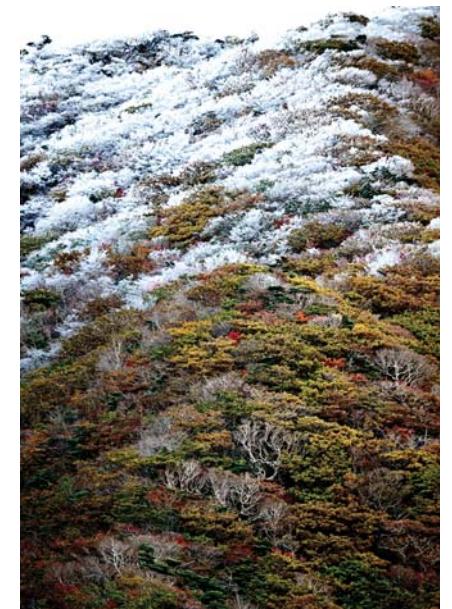
문예회관 제1전시실서

한국사진기자협회 제주도사진기자회는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제주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2025 제주보도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제주도사진기자회 소속 기자들과 명예회원들이 지난해 도내 곳곳을 누비며 기록한 보도사진 중 10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폭염 속 하늘을 가르는 패러글라이딩으로 여름의 얼굴을 형상화한 절묘한 작품부터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연삼로를 가득 채운 시민들의 행렬, 안타까운 우도 교통사고 현장 등 지난 한 해 제주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과 도민의 삶을 포착한 사진들을 전시한다.

고봉수 제주도사진기자회장은 “언론의 사명으로 진실의 청을 두드리는 사진기자들은 늘 역사의 현



‘한라산 단풍과 상고대’

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거운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사진기자회에는 한라일보, 제주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 도내 언론사 4곳이 참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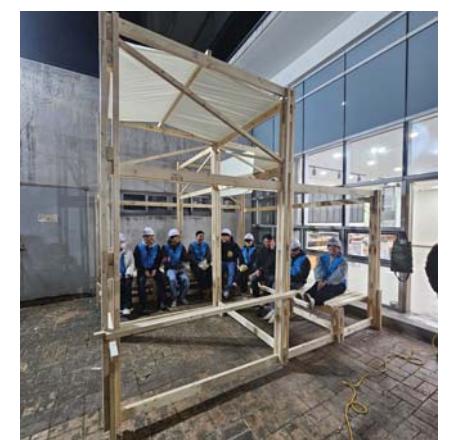
## 자연·건축의 경계선… 아카이빙 ‘사이’

### 제주대 건축학과 전시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주시 관덕로 대동호텔 1층에 자리한 갤러리 비아아트(viaart)에서 아카이빙 전시회 ‘사이’를 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한해 건축학과에서 진행한 비교과 활동들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지역 탐구, 자연 환경에 대한 관찰과 해석,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공간 실험 등 교실 밖에서 이뤄진 실천을 통해 지역과 사회를 마주했다.

전시에선 전국 건축과 학생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활동인 유



제주대 건축학과 학생 아카이빙전

니버설 하우스(U-Haus) 작품인 ‘조개를 쪼개’를 비롯해 목조건축 아카데미, 공공성 지도에 기반한 퍼빌리온을 선보인다.

박소정기자

### 동녘도서관 ‘책커피음악’

동녘도서관은 올해 매월 1회 ‘책커피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서가 직접 내린 원두커피와 함께 매월 선정한 주제에 맞춰 사서가 엄선한 책과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김채현기자

다. 이달 23일과 24일에는 ‘겨울을 닮은 책과 음악’을 주제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연중 매달 서로 다른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과 동녘도서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채현기자

## 계절의 흐름 속 제주 풍경… 돌아본 삶

### 김창화 ‘섬의 아우성’ 가족들 유고시집 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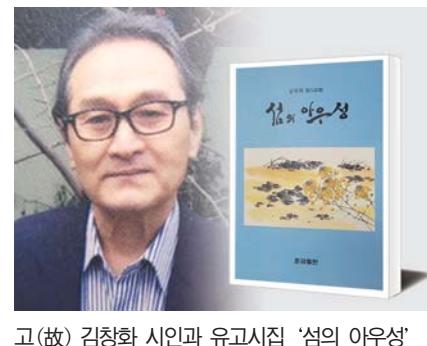
지난해 9월 작고한 제주 김창화 시인의 유고 시집 ‘섬의 아우성’이 출간됐다. ‘바다와 어머니’(2011), ‘바람의 섬’(2013), ‘저울 질 할 수 없는 무게’(2016), ‘섬의 노래’(2020)에 이은 다섯 번째 시집이다.

이 시집은 지난해 가을에 폐널

계획으로 탈고까지 마쳤지만, 병환을 앓던 그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나오지 못했다. 이후 그의 가족들이 “시인을 좀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라는 마음을 담아 그의 마지막 시집을 내놓았다. 표지화에는 그의 아내 홍선희 서예가가 그린 문인화 ‘제주 유채밭’이 담겼다.

제주해녀박물관 소장을 역임했던 시인은 제주시 애월읍 출신으로

공직 정년을 앞둔 2007년 ‘시와 창작’ 신인상을 받으며 예순의 나이



고(故) 김창화 시인과 유고시집 ‘섬의 아우성’

에 늦깎이 시인으로 등단했다. 제주도문인협회·국제펜(PEN)클럽, 애월문학회·공무원문학회 회원과 제주도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해온 시인은 제주 풍경을 서정적이면서도 담백한 시어로 그려왔다.

박소정기자

이번 시집에도 그러한 흐름이 이어진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지나며 마주한 제주의 풍경을 통해 삶을 관조하는 시 73편을 모두 5부로 나눠 실었다.

“어느 것 하나 추억으로 벼릴 수 없는” 고향마을을 담았고, “흐드러지게 피던 붉은 동백꽃”을 바라보며 아픈 역사인 4·3을 되새기고, 계절마다 지나는 길목에서 바라본 한라산, 바다, 숲, 마당의 고을나무 등을 통해 그리움과 외로움, 아쉬움과 미련 등 삶을 돌아보는 듯이 담담하게 고백하듯 읊조린다. 춘강 출판. 1만 5000원.

박소정기자

##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

### 25일까지 숨비온 AI아트전

사라짐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 지난간 뒤에야 비로소 그 자리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 제주의 한

작은 도서관 동아리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AI 아트로 풀어내며, 예술의 자립과 나눔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를 더했다.

노형부영2차 새마을작은도서관

공식 동아리인 AI 아트 동아리 ‘숨비온(Sumbion)’은 이달 25일까지 창작오픈스튜디오 플(제주시 관덕로 6길 11, 2층)에서 전시 ‘사라지는 것들(The Vanishing)’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고아라, 곽도연,

김정재, 김정혜, 임서경, 주수진, 황

은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제주

에서 디지털 교육 현장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강사들로 구성된 이들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간의 감성과 선택, 그리고 알고리즘이 함께 호흡하는 창작의 동반자로 해석했다. 숨비온은 작품 판매 수익 전액을 ‘천사의집 보육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채현기자

다. 이달 23일과 24일에는 ‘겨울을

닮은 책과 음악’을 주제로 오후 1

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연중 매달 서로 다른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과 동녘도서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채현기자



장혁진

사무관(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총괄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원리민 일동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TN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 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 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자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QHAK 품질인증’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신뢰도 1위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